접경지역연구의 이론적 고찰

김상빈[1] · 이원호[2] · 이현주[1] · 박삼옥[3]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1], 서울경제연구소[2],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3]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는 일찍이 근대지리학, 특히, 정치지리학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며, 2차 대전 이후 전후 유럽의 재편과 함께 크게 각광을 받았고, 꾸준히 정치지리학의 주요한 주제였다. 1990년 이후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이후,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접경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대신 국지적인 전쟁에 의하여 국경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갈등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갈등. 러시아 연방내에서 러시아 정부와 체첸간의 갈등은 국경분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1989/90년 유럽의 정치적인 지형변화는 다시 한번 경계연구의 붐을 이루는 중요한 동인이었다. 그래서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만을 전담하는 연구소나 연구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 지리학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부유럽, 동부유럽의 체제전환 과정(Transformation Process)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접경지역과 관련된 경계연구가 활발한 지리학 연구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소위 세계화 내지 지구화와 함께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해야할 사안들이 크게 대두하였다. 초국가적 기업의 탄생,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 등등.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서유럽국가들간의 월경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중동부유럽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이어지는 새로운 유러리전(Euroregion)의 성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간, 국가간 협력, 그리고 다가올 유럽연합의 동진(Enlargement of EU)에 의한 새로운 EU의 접경지역의 발생에 의한 월경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 하에서, 경계지역 연구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고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수 십년간 경계연구의 연구대상은 선으로서의 정치적 경계로부터 지방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그리고 행동공간으로 옮겨지고 확대되었다. 경계연구는 이론적 토대를 타학문 (특히 정치학, 인류학 혹은 사회학의 이론)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포괄적인 지리학의 이론은 발전하지 못하였고, 학제적 이론적 규범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시켜 문제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행위이론, 후기구조주의적, 구성론적 혹은 조절이론적 접근방법이 아주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경계연구는 현재 주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광범위한 토대 위에 서 있으며, 학제적 담론의 교환으로부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적합한 이론의 부족이 항상 논의되어왔다 (Wastl-Walter, D. & A. Ch. Kofler, 2000).

그러나 이러한 미진한 경계 및 접경지역연구의 이론화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접경지역연구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이어질 경계연구의 하나의 기초연구로서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1 경계 및 접경지역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무엇인가?
2. 경계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들의 논점은 무엇인가?

3. 경계 및 접경지역의 연구동향에서 주로 연구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4. 접경지역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5. 접경지역과 관련된 모델은 어떠한 것들이며, 이들의 논의는 무엇인가?
6. 외국의 모델이 한국의 접경지역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분석의 틀이 개발되어야 하는가?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문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들 전체를 고려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진행이 되며, 기타 대륙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된다.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학술적인 논문 보다는 정책 보고서류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료도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2. 접경지역의 개념과 유형

1) 경계와 접경지역의 개념과 의미를 둘러싼 논의

경계 및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의를 보면, 프란쯔(Franz, 1970)에 의하면, 경계라는 개념은 루터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 혹은 두 지역을 서로 구분하게 해주는 취락이 적거나 혹은 취락이 없는 접경지역(Grenzraum)"을 의미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선으로 고정되었고, 의미도 축소되었다. 안테(Ante, 1995)는 경계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한 구역의 인식되고, 알려진 끝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적인 문화적인 혹은 정치적인 특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구분하는 분리의 선"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쉬빈트 (Schwind, 1972)는 한 국가의 정치적 경계는 그 통치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며, 영토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접경지역으로부터 경계로 의미변환은 일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수백년 전에는 경계와 접경지역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점차 외세에 대응하여 Marken (변방지역을 관할하는 일종의 행정구역 체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선으로서의 기능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프레스콧(Prescott, 1975)에 의하면 접경지역이나 경계는 상이한 정치적 지배 체제하에서 서로를 구분하는 지대 혹은 선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양자는 공간적 다양성이 매우 각인되어 있는데, 특히 상이한 정치적, 경우에 따라서는 경계 양편의 사회문화적 체제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지리학자에 의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정의에서처럼, 과거에 접경지역을 나타내는 frontier와 border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접경지역은 미개발, 혹은 낙후한 변경(방)지역과도 동의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경계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달라지며, 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frontier를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해 보면, 공통적으로 frontier의 개념은 한마디로 애매모호함 내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 경계와 접경지역의 유형

경계에 대한 유형은 과거 전통적인 정치지리학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행해졌는데 이때 많은 경계의 유형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접경지역의 개방적인 추세에 따라, 경계의 유형화는 과거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많이 퇴색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경계의 형태와 관련하여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경계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기하학적 경계는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위도선을 따르거나 혹은 한 지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일직선의 형태이다. 비기학적 경계는 자연지리적, 문화지리적 경계로 구분된다.

3.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동향과 이론적 검토

1) 주요 연구주제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무척 다양한 주제를 예시할 수 있으나, 고전적인 연구 주제는 밍기의 연구(1963)와 헬러의 연구 (1993)에서 충분히 정리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의 주제는 경계 자체 보다는 개방화 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김상빈, 2002 참조). 최근의 주요 연구 주제는 접경지역들 간의 경제적 협력, 월경적 지역협력, 접경지역 도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접경지역들간의 경제적 협력은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활발한 주제이며, 이들 국가들을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끌어들임으로써 신국제분업의 체제에서 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대량생산 (특히 의류산업)과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전략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Kim, 2002 참조).

월경적 지역협력은 경제적 협력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지원에 힘입어 폭넓게 행해지고 있다. 단순히 회원국들 간의 월경협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가입후보국들과의 월경협력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 이것은 가입후보국들을 빠른 시일내에 기존의 회원국들과의 수준이 같아지도록 만들어 유럽연합내의 회원국들 간의 지역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접경도시에 대한 연구는 역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으며, 과거 하나의 지리적 공간이었던 도시들이 분단됨으로써 야기되는 공간구조의 왜곡과 함께 한편으로는 단절로 인한 낙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고 생각된다. 과거 1990년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연구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함께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2) 이론적 쟁점과 모델

본 절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몇 가지 이론적 모델을 고찰해보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다.

a) 뢰쉬의 모델: 뢰쉬(Lösch, A)는 상품유통에 미치는 경계선의 영향을 검토하여 그에 관한 공간적 모델을 제안한 것이었다. 뢰쉬에 따르면 국경이 미치는 분리적 작용은 중심지 기능 수요자와 중심지간의 경제적 거리의 증대로서 해석할 수 있다 (Bösler, K.-A., 1983). 국경의 양측에 걸친 유통관계를 중심지 시스템이라는 시점에서 분석할 경우, 국경이 미치는 분리적 작용의 강도는 국경 양측에서의 동일계층의 중심지간의 거리를 비교함으로써, 즉 경제적 거리의 증대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명백히 할 수가 있다. 뢰쉬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사례로하여 은행의 고객권에 관한 모델을 입증하였다. 관세의 존재도 국경을 둘러싼 상품유통에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뢰쉬는

선구적으로 국경이 미치는 작용을 거리로 치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정량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더욱이 뢰쉬는 국경을 입지요인으로 보았다. 국경과의 접근성은 특정상품에 관해 가격차를 출현시켜 상품공급자에게 입지상의 이점을 제공하게 된다 (Ibid.). 뢰쉬의 연구는 경계의 영향을 경제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최초의 연구라고 생각되며, 후에 이어질 많은 경계에 관한 이론적인 모델의 선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 마르티네스의 접경지역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접경지역 유형화의 모델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의 사례 연구로부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낸 마르티네스(Martinez, 1994)의 연구는 접경지역연구에 매우 유용한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마르티네스는 경계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따른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경계가 주민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 접경지역 주민은 소위 '접경지역의 환경'(borderland milieu)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한 국가의 다른 지역 주민들 보다 더 서로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호작용을 누리고 있다. 서유럽의 사례에서처럼 월경관계가 잘 발전한 곳에서는 '통합된 접경지역' (integrated borderlands)으로 분류되며, 다른 극단적인 경우에, 상호교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소원한 접경지역' (alienated borderlands)이다. 양극단 사이에는 '공존하는 접경지역' (co-existent borderlands)과 '상호의존적인 접경지역' (interdependent borderlands)이 있다.

c) 레찌 (Lezzi, 1994)의 모델: 접경지역간의 관계들에 대한 모델

행위자 중심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접경지역에서 정치-행정적 수행자의 행동에 주목하였다. 그녀는 해당기관들 간에 혹은 국가적 수준들 사이에서 관계들의 분류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d) 크레트케(Krätke)의 모델: 접경지역에서 기업간 협력에 대한 모델

rätke(1996; 1997; 1998; 1999)는 독일-폴란드의 접경지역 내 지역경제적 통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에 따르면, 동중부 유럽의 각각의 접경지역이 상이한 방식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이 되어왔으며, 미래의 독일-폴란드 접경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역발전의 방향 - low road paths와 high road paths - 이 구분되어야 한다.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high road paths'는 이노베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기업과 정치적 주체들간의 보다 강화된 협력을 통한 내재적 발전 잠재력을 이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몇 가지 모델은 국경의 기능 내지 역할에 대한 모델이라고 간략하게 요약이 가능한데, 뢰쉬의 모델에서는 주로 경계가 장벽으로의 역할을 예시한 모델이고, 레찌와 크래트케의 모델은 개방적인 접경지역에서 가능한 상호작용에 관한 모델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마르티네스의 모델은 접경지역들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3) 외국 사례[1)]

1) 미국과 맥시코의 사례 : 미국과 맥시코 접경지역개발은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세제혜택과 맥시코의 저임금을 이용한 미국기업의 분공장이 특징적인데, 국제분업을 통한 산업발전은 이 지역을 수출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성장시켰다 (Wu, 1998). 멕시코 노동자의 미국입국을 금지함에 따라, 멕시코 북부의 접경지역은 기존의 높은 실업률이 더욱 가중되어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완화가 선결과제로 부상하자 맥시코 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장기적으로 북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 계획의 핵심이 마킬라도라 프로그램(Maquiladora Program)이다.

---

1) 이 부분에서는 외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예시한 것인데, 지면상의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어떠한 형태로 접경지역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유럽연합의 사례: 유럽연합은 단일통화를 추진하여 달성했고, 경제적으로 국경없는 유럽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실제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접경지역연구는 기존의 주요산업지역 (라인강 상류, 바덴뷔르템베르크, 에밀리아 로마나)을 중심으로 타지역에 시사점을 위해 연구되었데 이 지역들이 단일한 경쟁단위가 될 것이며, 기업들의 연줄망이 갖추어진 초국경 접경지역이 핵심 센터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초국경적 개발은 민족적 문화적 갈등과 교통의 병목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접한 접경지역간의 협력이외에도,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발트해연안 국가들간의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 구체적으로 The Baltic Sea Region (BSR) INTERREG III B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3) 홍콩과 深圳의 관계: 홍콩과 심천 사이의 접경지역은 지난 10년간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심천 자체와 주장강 델타의 전체지역의 급속한 발전이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심천의 발전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심천의 발전 및 홍콩의 제조업과 심천의 신산업 사이의 공생적 경제관계에서 기인하는 홍콩의 경제전환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深圳 경제특구는 지난 10여년간 농업 등 제 1차 산업 종사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공업부문, 서비스 부문 등의 취업자는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深圳의 사회총생산액은 1981년에서 1993년에 이르는 12년간 130배로 성장하였다. 深圳 경제특구 초기에는 의류 및 섬유제품 제조업과 식품가공업이 주축을 이루며 성장하였고, 최근에 들어서는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이 공업 생산액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경제 특구의 발전과 경제체제 개혁은 무엇 보다도 홍콩, 대만, 마카오라는 배후지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1990년대 이후 중국 광동성이 홍콩의 배후산업지역으로, 복건성이 대만의 배후산업지역으로 발전한 것은 바로 접경지역의 산업체계상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4) 싱가포르(Singapore)와 조호르(Johor)-리아우(Riau)의 사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남부조호르(말레이지아), 바탐섬과 리아우 지방(인도네시아)를 포함시켜 싱가포르의 경제를 확대하는 정책인데, 이 정책은 싱가포르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주시키고,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소위 싱가포르-조호르-리아우 성장의 삼각형(growth triangle)은 실제로 이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삼각형(GT: growth triangle)개념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지구적 경쟁과 보호주의 환경 하에서 세 구성국가들의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지역간 협력의 효과적인 틀로 사용될 수 있다. 상이한 요소의 기본 자원과 상이한 비교우위를 가진 이 세 지역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무역의 잠재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4) 국내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통일과 관련된 논제와 함께 서서히 핵심적 연구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동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경향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남북 교류확대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의 지역개발 관련 연구가 가장 많다. 이는 학위논문, 여러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세미나 및 대담자료의 형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특히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존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셋째, 정치적 관점에서의 접경지역 연구 등이 상당히 활발하다. 넷째, 접경지역을 정치적 국경이 아닌 접촉지점으로 인식한 연구도 있다. 도·농간의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과 중심도시 간의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다섯째, 적성국간의 국경 접촉지점이 아닌 경제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사례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 및 프랑스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 러시아의 몽고-시베리아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들이 포함된다.

4. 경기북부 접경지역 이해를 위한 틀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을 이해하는 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 장의 외국 사례의 예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 접경지역 연구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경계 양쪽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접경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을 한반도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아직은 북한쪽의 접경지역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틀로서 경기 북부지역만을 고려해야한다. 둘째,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위한 분석의 틀로서, 다른 낙후지역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한다. 셋째, 국경에 바로 인접한 지역간 상호작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초국경적 협력도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발생은 거의 전적으로 외부적인 힘이 작용해서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개방적인 공간이었던 경기북부의 현재의 접경지역은 한국전쟁 후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폐쇄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으며, 과거의 지역과는 새로운 인위적이고도 자의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전후 처리의 결과로 확정된 경계에서 특히 잘 나타나는데,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적인 공간이나 문화적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어졌다. 이러한 현재의 접경지역은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법적인 요인들이 그리고 행위주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강력한 요인은 정치적 법적인 요인이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법은 이곳의 접경지역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이것들이 결국에는 행위주체의 기본활동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행위주체의 기본활동 제약은 공간구조에 반영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다시 한번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특징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낙후성과 소외성을 구조화 시키면서, 다시 이것들이 접경지역에 반영되는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